

성령에의 의존

칼빈은 흔히 “성령의 신학자”라고 불렸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의 교리를 충분하고도 명료하게 진술했기 때문이다. 워필드(B. B. Warfield)는 그에 대해 이렇게 썼다.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에 관한 칼빈의 모든 생각을 특징 지워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한 구원의 주권적 역사에 대한 인식이다.” 칼빈과 그의 동료들과 제자들은 성령에 대한 자신들의 전적인 의존을 의식했다. 그들이 한 부분을 담당했던 그 운동은 성령의 강력한 운동이었다. 그것은 힘도 능도 아닌, 오직 만국의 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었다.

성령의 강력한 부어주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1881년 조지 스미튼(George Smeaton)은 다음과 같이 썼다.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상처와 굶아터진 상태에 대해 오로지 성령이 부어지는 새로운 역사만이 효력이 있을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주장했다. “오늘날의 교회는 줄곧 성령을 기다려야만 하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기대하고 기도하라.” 종교개혁은 바람이 불어와 부딪힐 때까지 조용히 달려 있는 ‘바람 종’(wind chimes) 장식물과 비교될 수 있다. 그 장식물은 바람을 맞을 수 있는 곳에 놓여 있어야만 한다. 그것을 집 안에 두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은 바람이 불어올 장소에서 준비하고 있어야만 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령을 보내지 않으신다면, 교회에는 그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개혁자들처럼 우리들도 적재적소에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16세기의 개혁자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을 지닌 자신의 말씀을 울려 퍼지게 하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Soli Deo gloria)!

리더십과 신칼빈주의

하성만 (고신대학교 교수, 신학일반)



신칼빈주의는 19세기 말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지어진 명칭이다. 칼빈의 개혁주의를 표방했던 카이퍼가 프랑스와 독일 등지로부터 몰려온 계몽주의 운동에 대하여 만들어 낸 호전적인 용어이기도 하다. 이성을 방편으로 무신론 사상의 계몽운동은 거세게 화란에 밀려왔을 때에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이 스릴 넘치는 반전의 연속이기도 하였다. 카이퍼는 반계몽주의의 선봉에서 기독교를 옹호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리더십으로 세상을 맞서 싸우려 하였던 기독교 계몽운동가였다.¹⁾

이 글은 신칼빈주의가 거세게 몰아쳤던 무신론에 기초한 계몽주의 사상과 운동 앞에서 어떻게 세상과 맞서 싸웠는지를 살핌으로써, 현대라고 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어떻게 기독교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개혁주의 리더십이 무엇이며, 종교개혁 시대에 보여준 칼빈의 리더십과 칼빈주의를 계승 발전시킨 카이퍼의 신칼빈주의를 고찰, 전망함으로써,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하고자 한다.

1) 필자는 반계몽주의 운동을 하였던 카이퍼를 기독교적 계몽운동가로 표현한다.

1. 개혁주의 리더십

개혁주의 리더십은 개혁주의 세계관에서부터 출발한다. 복음의 영향력을 인간의 개인구원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모든 학문과 생활영역과 생물과 무생물과 생태환경을 포함하는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미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개혁주의 세계관으로부터 출발한 개혁주의 문화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와 같이, 세 가지 명령을 동시에 한꺼번에 말씀하신 명령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의 명령들이다. 이러한 세 가지 명령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동시적으로 이행되어야 했으며, 인간의 죄와 타락이 형성되기 이전에 하달된 것이다. 에덴동산에서 이미 존재했던 그 ‘다스리라’에 해당하는 노동의 의미는, 노동이 죄 때문에 들어온 형벌의 결과가 아니라, 죄 이전에 존재하였던 신성한 것²⁾이라는 것을 함축해준다.

한편, ‘다스리라’에 해당하는 명령의 의미는 ‘돌봄’의 의미가 있다. 인간이 다스리는 대상은 인간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 직접 종속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대신하여 피조물을 다스리게 되어 있던 것이다. 마치 관리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형태라는 의미이다. 아담이 여자를 사랑하며 다스릴 때 사용된 ‘돌봄’의 의미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게 함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피조물들을 모두 돌보신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자에 대하여 남자에게 부여하신 리더십의 목적은 ‘돌봄’을 위해서이며,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 대하여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리더십의 목적은 다른 피조물들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임을 말해준다. 보살피며 돌아보는 사랑의 대리자로서, 청지기의 역할을 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개혁주의 리더십의 내용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

2) 변종길, “고신교회와 개혁주의 문화관”, 『개혁신학과 교회』, (천안: 고려신학대학원, 2006), 62.

고자 한다. 첫째는 교회사적으로 칼빈이 보여준 리더십의 내용을 살피고자 하며, 둘째는 개혁주의 리더십의 신학적 토대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며, 셋째는 신칼빈주의의 주요 논쟁을 다루고자 한다.

2. 칼빈이 보여준 리더십

개혁주의 신학체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John Calvin, 1509-1594)의 목회와 신학적 사고체계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완성되었다. 제네바교회를 담임하여 시의회와의 연대와 투쟁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가 사역했던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는 프랑스와 약간의 타민족 사람들로 구성된, 구교로부터 종교적으로 피난 온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도시는 당시 인구 10,000명 정도의 규모였지만 결코 적은 인구는 아니었다. 더군다나 주변 국가들로부터도 정치적 독립을 쟁취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며, 경제적으로는 종교적 난민들이 몰려들어 생활기반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으며,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방종에 가까울 만큼 자유로운 상태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칼빈은 제네바 도시의 시의회로부터 목사청빙을 수락하고 부임하게 되었다. 이로써 칼빈은 종교적 난민들로 대부분 구성된 이민교회를 목회함으로써 출석교인들 뿐 만 아니라, 제네바 시의회를 통한 모든 시민들에게까지 목회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칼빈은 두 차례에 걸쳐 제네바 사역을 하였다. 첫 번째 기간(1536-1538; 3년 간)은 기욤 파렐³⁾이라고 하는 제네바 목사에게 붙잡혀 강권하였던 파

3) 안인섭, “칼빈과 파렐”, 『칼빈과 종교개혁가들』, (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12), 225. ; 칼빈보다 20살 많은 파렐은 1532년부터 1534년 동안 제네바에서 공개논쟁을 통하여 로마교황제도를 공격하면서 개신교 교리를 주장하였는데, 1535년 8월 27일에 결국 제네바 시의회는 공식적으로 종교개혁을 선언하고 미사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시민들은 서약하였다. 이로부터 1년 후인 1536년 칼빈이 제네바 시에 방문하였을 때 파렐이 강권하여 그를 붙잡았던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제네바 시의 종교개혁은 파렐이 시작하여 칼빈이 완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렐의 음성을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권하였던 것으로 받아들이고, 1536년 9월부터는 교회의 교사로서 바울 서신서를 강해하는 사역으로 시작하였다. 단순한 성경교사의 역할로서 뿐만 아니라, 1537년 1월에 시의회에 제네바 목사들의 이름으로 제출한 교리교육서와 신앙고백서의 제출안에 깊이 관여하였는데, 칼빈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닦은 학문들이 수사학과 변증학 등을 공부하였던 학자적 목회자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가 초안한 제출안들은 시의회를 통과는 하였지만, 제네바 시민들이 그의 결안을 따르게 하는 데는 시의회 반대파와 도덕적 자유를 추구하는 대중들의 정치적 반대에 부딪혔다. 교회 정치적으로 칼빈과 맞지 않았던 재세레파, 교리적으로 심각한 충돌을 야기하였던 삼위일체 반대파,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도덕적으로 방종을 추구하던 인문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결국 그의 사역은 실패하게 되었다. 제네바 사역 3년 만에 제네바의회로부터 의정권을 장악한 반대파들에 의하여 추방령을 받게 되고 스트라스부르⁴⁾로 가게 된 것이다.

두 번째 기간(1541-1564; 23년 간)의 제네바 사역은 칼빈이 병약하여 그곳에서 죽기까지의 모든 남은 생애였다. 망명하여 도망한 장소였던 스트라스부르에서 교회 개혁가들 중의 중요 인물이었던 부셔(Martin Bucer, 1491-1551)를 만나 부셔의 추천으로 신학교 사역을 하게 되었고, 아울러서 교회 내 정치형태 구성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할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부셔(Bucer)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던 아내는 재세레파 교인 출신으로서, 부셔(Bucer)가 사역하였던 교회에 새로 입교한 이멜레트 드 뷔르라고 하는 여인이었다. 그녀에게는 남편과 두 자녀가 있었지만, 남편은 입교 후 페스트 병으로 죽게 되니 그녀는 과부가 된 상태에서 칼빈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다.

4) 박경일, “성서화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 『개신과 부흥』 9, (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11), 94. ; 당시 스트라스부르는 ‘의의 피난처’로 불리었다.

비록 짧은 3년간의 스트라스부르에서의 생활이었지만, 칼빈 자신에게는 많은 생각과 변화를 가져다 준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칼빈이 제2차 제네바 사역에서 보여주었던 목사로서의 역할은 참으로 놀랄만한 것이었다. 칼빈의 리더십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목회적 리더십(Pastoral Leadership)이다. 이는 그가 사역하였던 제네바교회의 정치구조에 있어서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말씀 사역에서도 역시 서신서 설교 사역을 통하여 교리적 개혁을 추진을 하였다. 이는 집사직을 두어 어려운 사람들을 정기적이고 구체적으로 돌보았을 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목회자로서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 감독함으로써 신앙생활을 지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사회에 대한 무한 책임(Community Responsible Leadership)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교회 출석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시의회에 교리문답서나 신앙고백서 등을 만들어 모든 시민들이 지키게 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제네바 2차 사역 초기에 시의회에 제출한 시민법에 의하면 과소비를 억제⁵⁾ 하고 상업을 장려하며, 사회복지에 큰 관심을 기울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노력은 1544년에 제네바 시의회에 채택됨으로써 더욱 가속화되었다. 하지만 1549년 초기부터 칼빈이 제네바에서 이루고자 하는 노력들은 칼빈의 반대파들에 의하여 더욱 거세게 충돌하게 되었다. 시의회에서의 정치적 반대파들과의 충돌은 1555년 5월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칼빈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칼빈의 사회 참여 및 개혁추진은 분명 교회 안에서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제네바 시 전체의 변화를 유도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칼빈의 리더십은 동역자적 리더십(Cooperative Leadership)이었

5) 이양호, “칼빈의 개혁사상과 한국교회”, 『제3회 칼빈학술세미나』 (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11), 3:24.

다. 기욤 파렐로부터 요청 받았을 때도 그러하였고, 잠시 프랑스에 있는 고향에 갈 기회를 얻었을 때, 고향에 있던 자신의 동생들을 제네바로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한 예 등은 좋은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동역자적 리더십은 스트라스부르로 망명을 갔을 때 그곳의 목사였던 부쎈(Bucer)가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도 역시 동역하였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넷째, 칼빈의 리더십은 미래지향적 리더십(Futuristic Visionary Leadership)이었다. 차세대 지도자들의 훈련에 관심이 있었으며 그들을 준비시켜 양성함으로써, 다가올 미래 사역을 대비하고 있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과거의 악몽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미래의 환상(vision)에 사로잡힌 사역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칼빈의 리더십은 행동하는 리더십(Conductive Leadership)이었다. 만약 그가 아무리 미래 지향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면 그는 이상가로서만 역사에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칼빈의 미래 지향적 리더십은 행동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의 행동하는 리더십은 이미 제네바 시의회와 고문 자격으로 적극 참여함으로써, 제네바 시 전체에 영향을 주어 제네바 시의 미래 변혁을 유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지성적 리더십(Intellectual Leadership)이었다는 점이다. 그가 제네바에서의 고된 정치적 싸움이 끝난 1555년 5월, 그때로부터 만 4년 만에 드디어 제네바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칼빈이 제네바 시민권 획득보다 더 기쁘게 생각했던 것은, 1559년 6월에 비로소 성취할 수 있었던 그의 꿈이 실현되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하는 대학을 설립할 수 있었던 성취였다. 그는 여기서 자신의 제자였던 베자를 학장으로 임명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학교운영의 목적은 평신도 지도자들과 목회자 양성이었다. 모든 학생들에게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교양과목으로 개설되었으며, 목회자 후보생들을 위하여서는 설교와 설교 평가 수업

등이 포함되었다. 동시에 칼빈은 교수들의 급료를 시에서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가난한 학생들의 수업료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였다.⁶⁾ 그가 사망할 무렵인 1564년경에는 외국에서 적극적으로 유학 온 학생들을 포함하여 1500여명의 학생들과 신축 건물이 완공되어 대학의 훌륭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대학 강의 사역뿐만 아니라, 칼빈은 틈나는 대로 훌륭한 저술들을 많이 남김으로써 후대에 길이 남을 신학과 목회의 길라잡이로 평가받고 있다. 한 세대를 넘어서 오늘 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하는 그의 저술활동은 그가 지성적 리더십의 소유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곱째, 상관문화적 리더십(Intercultural Leadership)이다. 피난민들로 구성된 교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프랑스 출신들이었다. 프랑스와 인접한 스위스 땅에서 독일 출신 부쎈(Bucer)의 영향 아래 같은 프랑스 출신 개혁교회 목회자였던 파렐과 동역하였으며 교인들은 이민자들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세대와 세대간의 차이와 스위스에서 프랑스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적 난민들을 목회함으로써, 문화적 배경을 전제로 하는 칼빈의 리더십은 다문화 내에서 발휘된 상관문화적(Intercultural) 리더십이었다.

마지막으로, 성경원리적 리더십(Biblical Framework Leadership)이다. 칼빈이 추구하였던 교회 정치구조는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집사직의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장로직의 부활로 정점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시의회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장로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단순히 역사적 동기에서가 아니라, 성경적 원리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칼빈은 이해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와 후대의 개혁교회에 적용하려 하였다.

위에 열거한 여덟 가지 이상의 리더십 소유자였던 칼빈은 스트라스부르의 목회자였으며 개혁가였던 부쎈(Martin Bucer)의 영향을 받았다. 이미

6) *Ibid.*

목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던 개혁교회 목회자였던 스트라스부르의 마르틴 부셔(독일 출신 스위스 스트라스부르 교회목사, 1491-1551)는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이루었던 루터보다 8년 후배였으나 칼빈보다는 18년의 인생 선배였다. 루터의 개혁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부셔는 칼빈에게 자신이 직접 고민해왔던 많은 문제들을 더욱 숙성시켜 전달하게 된 셈이었다.

당시 개혁교회 목사였던 부셔(Bucer)의 고민과 과제는 교회의 정치적 독립이었다. 교회 개혁의 중심에는 언제나 교리적 개혁과 함께, 정치적 개혁이라는 과제가 병행되었다.⁷⁾ 이미 로마교회로부터 시작된 세상 정부에 대한 교회의 감독과 간섭은 오히려 세상 정부가 교회를 판단하고 감독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다. 부셔와 칼빈의 고민은 성경의 원리에서 출발한 역사적 필요에서 발전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1차 제네바 사역에서는 1536년과 1539년도에 칼빈이 저술하고 출판한 기독교 강요에는 집사직에 관한 것만 나타나며, 장로직에 관한 언급은 없었지만, 1541년과 1545년에 출판된 기독교 강요에는 장로직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다. 로마교회에 반대하여 방임에 가까운 자유주의를 추구하였던 시의회 지도자들이 물러나게 됨으로써, 칼빈을 지지하던 의회 지도자들은 칼빈을 다시 제네바 시에 모셔오려고 초청하게 되었다. 제네바 시로부터 추방당하였던 칼빈이 다시 그 도시에 돌아올 때는 정치적 승자로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온 그 해 1541년도에 칼빈은 제네바 시의회의 고문자격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교회를 위하여 『제네바 교회 규정서』를 만들게 되었다. 여기에서 칼빈은 교회 치리에 있어서 장로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직분자들을 네 직분자들로 규정하고 있다. 목사, 교사, 장로, 집사직이다. 이러한 네 가지 직분 규정은 전통적으로 화란에서의 개혁교회들

7) 이때는 이미 부셔가 스트라스부르의 시의회로부터 로마가톨릭 구교의 미사 의식을 폐지하고 시민들에게 서약을 받은 후였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그 때의 교회의 교리와 정치개혁이 얼마나 절박한 문제였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칼빈이 처음 제네바에 방문했을 때 부셔가 그를 붙잡았는데, 이 시기는 이러한 신교를 위한 법제정이 있는 지 1년이 지난 때이었다.

이 교사직을 목사직과 별도로 두어 신학교 교수를 교사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 흔적을 유지하고 있다. 칼빈이 최초 의도하였던 교회 정치 원리 목적은 세상 정부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며, 동시에 교회의 무질서한 자유방임주의를 배척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칼빈의 노력을 단지 사회적 요구에 의하여 나타난 현상만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다. 어떤 이들은 장로교의 역사적 배경만을 강조한 나머지, 주후 1세기에까지 나타났던 교회 직분들도 역시 그 당시 필요에 의해 서만 출현하였다고 이해하려는 학자들도 있다. 이러한 이해는 오늘 날도 역시 오늘 날의 필요에 의해서 직분들이 바뀔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 나타나는 교회 직분들은 분명히 교회의 확증된 리더십이었으며, 단순히 그 당시의 역사적 필요에 의하여 출현한 직분들이 아니라, 구약에 근거하며 신약에서 연속되었던 성경적 원리에 입각한 독특한(unique) 직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장로교 직분론은 성경적 원리에서 발생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켜져야 하는 교회 리더십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의 교회 목회자들이 목사직 편중으로 목회를 하려 한 다거나, 혹은 효율적인 목회를 추구하여 위원회를 포함한 제자훈련이라는 소그룹 리더들 중심의 교회 리더십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 있다. 건강한 교회의 리더십은 집사와 장로와 목사라고 하는 균형 있는 리더십 형성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신칼빈주의

3-1 신칼빈주의 배경: 아브라함 카이퍼

신칼빈주의(Neo-Calvinism)는 극단적 칼빈주의(Hyper-Calvinism)와는 구별된다. 극단적 칼빈주의는 칼빈주의 교리를 특별한총 교리에 있는 예정론과 선택교리를 통하여 더욱 편협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신칼빈주의는 일반은총 교리를 통하여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게 됨으로써 칼빈주의 신학체계를 더욱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신칼빈주의라는 용어는 아브라함 카이퍼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사용되었다. 칼빈주의와는 차별을 두겠다는 카이퍼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는 신칼빈주의의 시발점이 되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의 사상은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등지에 이미 퍼져 있었던 계몽주의에 대한 위기감이 화란에서도 번지기 시작했을 때 거의 반작용으로 확산되었다. 이미 계몽주의의 현실 앞에서 기독교 정치이념을 가진 반혁명당이 조직되어 대항하였던 사회적 배경이 있었다.

카이퍼는 1867년 어트레흐트(Utrecht)에서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 그의 나이 서른 살이 되던 해였다. 하지만 3년 후인 1870년 카이퍼는 목사직을 그만두고, 1870년에 암스테르담에 오게 되었다. 1871년 그가 『드 헤라우트』(De Herald) 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지만, 일 년 후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출판사인 『드 스탠더드』(De Standard)를 열게 되었다. 이 신문은 훗날 카이퍼가 주도했던 개혁단체들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셈이었다.

3-2 신칼빈주의의 정치참여: 카이퍼의 정치활동

1874년에 지역 보궐선거로 시의회에 입성하였으나, 지나친 과로로 인한 건강 문제로 1877년에 의회를 떠나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이듬해 1878년에 수도인 암스테르담 시의회에 복귀하여 신구교 기독교계 학교들에 불이익을 주려하는 새로운 교육법을 제정하려는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유당(the Liberal Party)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이끌

어내기도 하였다.

이것은 당시 1879년에 화란 최초의 기독교정당인 반혁명당(Anti-Revolutionary Party)을 세우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카이퍼가 반혁명당이라고 하는 기독교당을 창립하여 이루고자 하였던 가장 큰 이슈는 교육법에 관한 것이었다. 교육법 투쟁의 주 내용은 공립학교 뿐 아니라, 기독교계의 사립학교들에게도 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신 교육법 반대와 로마교 정당과의 연합으로 이룬 사립학교를 위한 예산 배정안건 통과는 의회에서 강력하게 정치적 활동을 펼쳤던 카이퍼(Abraham Kuyper)의 리더십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카이퍼의 활동무대는 그가 하나님의 주권 확립과 확장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세웠던 반혁명당이 세워진 1879년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의 1920년까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반혁명당의 리더로 인정받았다. 추종자들은 “Abraham de Geweldig” (Abraham the Great)이라는 별칭을 붙여줬다. 1880년에 자유대학교(the Free University)를 세우고 인재양성에 힘쓰는 동시에 1886년부터 1892년까지의 6년간은 교회 개혁을 위하여 온 힘을 쏟은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카이퍼의 이러한 정치활동은 그에게 의회 활동과 저널리스트(Journalist)로서의 명성을 더욱 얻게 만들었다. 1898에는 화란의 전체 저널리스트들의 회장이 되었으며, 1901년에는 비비 워필드(B. B. Warfield)⁸⁾의 초청으로 미국의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카이퍼가 정치 활동에서도 활발하게 하여, 1901년도에 그는 내무장관을 거쳐서 교육, 외교 분야의 전문가로서 국무총리가 되었다. 국무총리로서의 자리는 1901년부터 1905년까지에 걸쳐 지켜졌으며, 반혁명당의 당 대표로서는 1907년부터 그가 사망하던 해인 1920년까지 그의 정치적 자리

8) B. B. Warfield의 제자들은 초기 한국선교사들 중 20명에 달하는 제자들을 배출시켰던 프린스턴 신학교의 조직신학자였다.

를 지켰다.

3-3 아브라함 카이퍼의 교회개혁과 교리개혁 개요

1886년부터 1889년까지 3년 동안은 화란개혁교회(the Dutch Reformed Church)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데 카이퍼가 기수 역할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분립 이유는 국가의 교회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던 운동은 교회 독립을 위한 연맹으로 이어졌고, 다시 3년 후인 1892년에 완성되어졌다. 국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하는 형태인 개혁교회를 이루는데 6년이 소요된 셈이었다.

한편, 카이퍼는 1895년부터 1901년까지 『드 헤라우트』(*De Heraut*)⁹⁾에 연재되어 온 글들을 모아 『일반은총』(*De Gemeene Gratie*)이란 제목의 3권을 출판하게 되었다.¹⁰⁾ 이렇게 출판된 카이퍼의 『일반은총』은 문화사명에 관한 내용이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학문을 포함한 모든 실생활 영역에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그의 학문적 노력은 그가 추구했던 신칼빈주의 운동의 신학적 토대와 교회 개혁의 교리적 기초를 마련해주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카이퍼가 자신이 몸담고 있던 화란개혁교회(the Dutch Reformed Church)를 떠났으며, 암스테르담에 있는 상당수 교회들이 이에 동조하였다. 1886년부터 1992년까지에 걸쳐 이들은 애통하는 자들(the Dolerenden; those with grievances; grieving ones)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 1889년까지 이들 교회들은 200여개 이상이 되었고, 교인들의 수가 180,000명 이

9) "The Herald"라는 이름은 "전달자"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서, 대중매체나 신문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름이다. 변종길은 이것이 신학 잡지의 이름이라고 소개 하였다.

10) 변종길, "고신교회와 개혁주의 문화관", 『개혁신학과 교회』, 2006, 63.

상이 되었으며, 목회자들도 80여명 이상이 넘게 되었다.

드디어 1892년에, 이들은 화란 개혁교회(the Dutch Reformed Church)로부터 나와 네덜란드 개혁교회(Reformed Church in Netherlands)를 세우게 되었다.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미국 개혁교회(RCA: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¹¹⁾에 후에 비슷한 쌍을 이루게 된다.

화란에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하려는 기독교 종합대학교를 세웠던 1880년부터 1892년에 이르기까지 12년 동안, 아브라함 카이퍼는 대학설립과 유지 그리고 교회개혁을 위하여 큰 공헌과 역할을 하게 된 셈이었다. 카이퍼가 믿었던 신념은 칼빈주의 세계관의 확립과 유지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확장과 실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분명 계몽주의의 영향력 아래 당시 화란에 확산되었던 이성 중심의 과학적 사고만을 고집하여 비기독교적인 사고를 선호하는 자유주의자들이나 로마교로 회귀하려는 운동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카이퍼는 전통적인 칼빈주의보다는 더욱 강력한 칼빈주의의 실현을 원했기에 스스로 자신의 이론을 신칼빈주의라고 명명하였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 영역에 실현시키려는 의도에서였다.

이러한 신칼빈주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카이퍼는 많은 추종자들을 남기게 되었는데, 그들을 신칼빈주의자들(the Neo-Calvinist) 혹은 카이퍼주의자(the Kuyperian)들이라고 부른다.

11) 1628년에 세워진 RCA는 현재의 이름을 1867년에 가지게 되었고, 이전에는 개혁개신 화란교회(the Reformed Protestant Dutch Church)라는 이름으로 1819년에 등록되어 있었다. 1628년 당시에는 네덜란드의 식민지령이었던 이유로 네덜란드 개혁교회(당시는 미국의 뉴욕이 New Amsterdam의 이름을 가짐)와 동일하게 자연스럽게 보조를 맞추게 되었다. 1664년에 New Amsterdam이 영국령으로 넘어간 이후에조차도, the Reformed Church는 1764년까지 화란어를 사용하였다. 1747년에, 네덜란드 교회는 아메리카에 독립적인 권위를 부여하였으며, 1754년에 비로소 독립적인 별도의 총회를 가지게 되었다. 현재의 미국 뉴저지의 주립대학인 Rutgers University는 당시의 이름인 Queens College라는 이름으로 1766에 세워지게 되었다. 이들의 영향력은 중부 뉴저지에 있는 뉴브런스윅 신학교(New Brunswick Theological Seminary)를 세우게 되는 등 신학교와 종합대학교 등 교육에 많은 힘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분명 신칼빈주의 운동의 결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4 신칼빈주의 주요 논쟁: 문화사명

1895년부터 1901년 사이 『드 헤라우트』(*De Heraut*)에 연재하여 온 글을 모아 『일반은총』(*De Gemeene Gratie*)¹²⁾이라는 제목의 총 3권을 출판하게 되었다. 이 일반은총에 관한 내용은 언약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사명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카이퍼의 『일반은총』에 대한 강력한 주장은 칼빈주의 문화관 논쟁의 시발점이 되었다. 문화관 운동은 칼빈주의 세계관의 실현을 의미하였다. 그가 말한 “일반은총”¹³⁾이라고 하는 단어는 “the general grace”의 화란어 “De Gemeene Gratie”였다. 카이퍼가 논쟁하고자 하는 일반은총이라는 용어는, 특별은총이라고 불리는 구속이나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 등이 있기 이전부터, 창조 때에 이미 허락하신 방편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구속받지 못한 인간들에게도 역시 하나님 형상의 자격으로서 택자들과 불택자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카이퍼의 일반은총에 대한 강조는 카이퍼 추종자들(the Kuyperian)에게 두 가지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하나는 카이퍼의 생각을 생활의 모든 영역에 더욱 구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일반은총을 강조한 부류를 낳았고, 다른 하나는 일반은총을 강조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복음전도를 통한 특별은총이 유일한 탈출구임을 믿는 부류가 생겨났다. 전자는 도이벨트이고, 후자는 스킨더와 같은 학자들이 그러했다. 도이벨트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강조하는 길을 택함으로써 특별은총인 복음전도를 약화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스킨더는 이러한 복음전도와 같은 특별은총의 방편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일반은총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카이퍼의 『일반은총』에 관한 논쟁은 화란의 캄펜

신학교의 윤리학을 교수하였던 다우마(Jochem Dauma, 1931-)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다. 다우마는 일반은총에 관한 논쟁에서 카이퍼를 비판하였다고 생각되는 스킨더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반대가 아닌 같은 방향의 생각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스킨더는 카이퍼가 일반은총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복음전파의 강조를 약화시킨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다우마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인 『일반은총』(*Algemene Genade*)에서 아브라함과 클라스와 칼빈의 일반은총론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카이퍼와 스킨더의 문화관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 카이퍼는 불신자들의 문화 속에도 상당부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인정한 반면, 스킨더는 기독교인들의 문화관이 불신자들의 것과는 대립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였다. 불신자들의 문화에는 사탄의 요소가 들어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스킨더는 불신자들의 문화와의 대립에 머문 것은 아니고, 기독교인들의 문화가 불신자들의 문화 가운데서도 개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두 사람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다우마의 지적이다.

여기에 비해 칼빈은 일반은총에 대한 ‘계발 혹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비교적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일반은총은 인정하고 있지만, 하나님 지으신 세계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창세기 1장의 초점이 사람에게 주어진 “향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다우마(J. Dauma)는 보고 있는 것이다.¹⁴⁾ 따라서 다우마의 결론은 “칼빈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문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카이퍼에게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스킨더에게는 제한된 상태로 나타난다.”(변종길, 69)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다우마의 문화에 대한 입장은, 카이퍼나 스킨더가 문화활동에 지나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결론이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이 문화활동에 관심을 지나치게 가지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론을 짓는다.¹⁵⁾

하지만, 이러한 다우마의 결론은 카이퍼의 〈일반은총〉에 대한 논쟁에 대

12) 변종길, 63.

13) 변종길은 “일반은혜”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14) 변종길, 63-70.

15) *Ibid.*, 70.

하여 더욱 불을 지피며, 신칼빈주의 운동을 확산시킬 뿐이었다. 다우마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고려신학대학원 신약학 교수인 변종길은 드 프리스(W.G. de Vries)와 캄프하이스(J. Kamphuis) 등의 다우마에 대한 반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결론은 “나그네인 동시에 막중한 문화사명자”임을 강조하고 있다(변종길, 71).

한편 카이퍼와 거의 동시대에 살았으며, 화란의 자유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교수하였던 바빙크(1854-1921)는 그가 쓴 계시철학(the Philosophy of Revelation)을 통하여 문화에 대한 그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문화가 기독교와 상충된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단언한다.¹⁶⁾ 하지만, 그는 복음으로써 문화를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여, “십자가는 문화를 새롭게 만드는 절정을 이룬다”고 강조하며 성령의 씻음으로 새롭게 되는 문화 재창조를 주장하고 있다.¹⁷⁾

3-5 신칼빈주의 흐름과 전망

카이퍼로부터 출발한 문화사명에 관한 일반은총에 관한 논쟁은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 1854-1921)¹⁸⁾와 베르카우어(Gerrit Cornelis Berkouwer, 1903-1996)¹⁹⁾ 등이 사회 참여를 위한 신학적 기반을 제공하였고, 법철학을 전공한 기독교철학자인 헤르만 도이벨트(Herman Dooyeweerd, 1894-1977)와 캄펜신학교의 교의학 교수였던 클라스 스킬더(Klaas Schilder, 1892-1952)²⁰⁾ 등의 카이퍼 추종자들에 의하여 논쟁으로 심화 발전되었다.

16) 헤르만 바빙크 『계시철학』, 위계찬 역 (서울:성광출판사, 1984), 266.

17) *Ibid.*, 279-80.

18) 화란 캄펜 신학교의 교의학 교수로서 당시 캄펜 신학교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따라서 자유대학교(Free University: VU)가 세워졌을 때 봉사한 초대교수들 중의 하나로서 카이퍼와는 동료교수로 있었다.

19) 화란 암스테르담에 있는 자유대학교(Free University: VU)의 조직신학교수 제자였다.

20) 클라스 스킬더는 화란의 캄펜신학교의 조직신학교수로 봉사하였다.

이토록 신칼빈주의의 신학은 “문화 논쟁”으로 인한 운동력이 있어 화란 뿐만 아니라, 화란인들이 살았던 미국²¹⁾과 남아공화국에도 깊은 영향을 남겨왔다. 보수적 근본주의적 성향을 보여왔던 미국의 기독교계와 개인의 구원 열정과 해외 선교를 강조해왔던 영국의 복음주의는 1974년 스위스의 로잔대회를 통하여 노선 수정이 이루어졌다. 미국에서는 국가로부터 핍박받던 화란인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CRC(Christian Reformed Church)를 형성하였고, 1876년에는 칼빈대학과 칼빈신학교를 세웠다.²²⁾ 화란의 자유대학교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형성²³⁾하며, 앨빈 플랜팅가(Alvin Carl Plantinga), 니콜라스 월터스토폴프²⁴⁾(Nicholas Wolterstorff), 조지 말스든(George M. Marsden) 등의 현대 학자들이 신칼빈주의 운동을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⁵⁾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칼빈주의 운동의 영향아래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학교들이 미국²⁶⁾과 캐나다에 세워지게 되었는데, 도르트 대학, 트리니티 대학 등의 학교들이 있으며, 개혁파 고등교육기관 협의회(ARIHE)를 결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²⁷⁾. 뿐만 아니라, 프린스턴신학교를 뒤이은 웨스트민스터신학교 등은 로버트 갓프리(W. Robert Godfrey), 로버트 딕 윌슨(Robert Dick Wilson), 오 티 앨리스(O. T. Allis), 그레삼 메이첸(J. Gresham Machen), 코넬리우스 반틸(Cornelius Van Til), 알 비 카

21) 이정석, “신칼빈주의 운동이 사회에 미친 영향” 2011, www.jsrhee.com/QA/History2.htm; 19세기에는 화란에 흉년이 거듭되면서 미국 이민이 급증하였는데, 화란 국가로부터 핍박을 받던 분리교회 교인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고 기술한다.

22) *Ibid.*

23) Mark A. Noll, *The Scandal of the Evangelical Mind*, 이승학 역,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5), 317-20.

24) 니콜라스 월터스토폴프는 칼빈대학의 교수요, 대표적인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들 중 하나로서, 그의 사상은 신복음주의 운동에 공의(justice)를 구현하여 이루고자 하는 살롬공동체를 주장함으로써, 신칼빈주의 운동의 정의구현을 위한 사회 참여라고 하는 보다 현실참여적인 신학운동으로 발전시켰다. 소진희의 박사학위논문(2006)인 “파울로 프리에리와 니콜라스 월터스토폴프의 정의교육 사상 비교 연구”를 참조.

25) 이정석, 2011, “신칼빈주의 운동이 사회에 미친 영향,” www.jsrhee.com/QA/History2.htm.

26) 미국의 건국과 사상에 관하여 기독교 지성을 상세히 보기 위해서는 마크 A. 놀의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을 보라.

27) 이정석, 2011, “신칼빈주의 운동이 사회에 미친 영향,” www.jsrhee.com/QA/History2.htm.

이퍼(R. B. Kuiper), 스톤하우스(Ned B. Stonehouse), 폴 울리(Paul Woolley), 그리고 알렌 맥래(Allan MacRae) 등의 교수진들이 신학의 좌경화에 반대하여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구 프린스턴 신학의 뒤를 잇는 역할을 하였다.²⁸⁾

한편, 1974년 복음주의 대회였던 스위스에서 로잔언약 선언은 복음주의 노선의 전도 목적에 대한 방향 수정을 보여주고 있다. 복음주의 전체를 엮을 수 있는 신학적 리더십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으로 이미 신칼빈주의에 의하여 확장되어왔던 개념이기 때문이었다. 비록 복음주의라는 옷은 걸쳤지만 그 내용은 신복음주의 운동으로의 선회라고도 평가될 수 있으며, 신칼빈주의 운동의 신학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전까지 있어왔던 독일의 경건주의나 영국과 미국에서의 복음주의 운동은, 계몽주의로 인하여 상처 입은 어쩔 수 없는 실존주의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자구책(自求冊)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신칼빈주의 운동은 화란과 미국에서 화란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을 하였다. 복음주의의 성찰은 곧바로 사회 정의와 관련된 로잔언약 선언에서 신칼빈주의로 그 노선이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의 신칼빈주의 운동의 전망에 있어서 기독교계 안에서의 리더십을 더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카이퍼가 확신을 가지고 확립하였던 신칼빈주의 운동은 그가 죽은 지 10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기독교계를 이끌고 있는 셈이다.

한편 여성 목사 안수 뿐만 아니라, 동성연애, 동성결혼과 동성애자의 목사 안수문제를 인정하는 세계교회협의회(WCC)는 2013년에 제10차 총회를 가지는데 있어서, 2010년 1월 25일 제1차 신앙과 직제위원회에서 제 10차 총회를 위한 주제 논의가 있었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1-9차 총회의 주제들

28) W. Robert Godfrey "웨스트민스터학파", 『웨스트민스터신학과 화란 개혁주의』(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2), 31-52.

은 너무나 삼위일체론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삼위일체론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을 논의하였다.²⁹⁾ 보수진영에서는 이러한 WCC의 방향 설정에 대하여, 기독교 등의 복음사역 중심의 논의로부터 탈피하여 사회구조적 참여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일축한다. 그리스도의 구속적 희생을 도외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진보적 성향의 좌경화된 세계교회협의회에서도 역시 신칼빈주의가 강조하는 개인의 영혼구원보다는 사회적 구조 변혁을 강조하는 신학적 토대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타 종교와의 대화를 모색하고, 진리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기까지 한다. 다분히 위협한 교리적 경계선에까지 서 있어 보이는 그들에게서조차도 신칼빈주의의 영향력 아래서 완전히 벗어나기란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그들의 결정이나 동기들은 다분히, 신칼빈주의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나 깊이 있는 연구 없이 진행된 신중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세상 속에서의 기독교인들의 책임과 권리에 있어서, 기독교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외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3-6 리더십과 신칼빈주의 상관성

이처럼 신칼빈주의는 포스트모던 시대라고 불리는 20세기에 들어와서 현재 21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유일한 기독교 리더십 대안이다. 신칼빈주의는 계몽주의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현대 인본주의와 상대주의 앞에서 싸워 낼 수 있는 유일한 기독교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은 인본주의 리더십으로 덮여있다. 경영학이 교회와 신학 연구에 들

29) 김영석, "한국기독교협의회와 종교다원주의", 『갱신과 부흥』 9 (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11), 44.

어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며, 리더십의 대안인양 소개되고 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계몽주의의 영향은 현대 인본주의와 상대주의뿐만 아니라, 지난 300여 년 동안 있어 왔던 이신론주의, 낭만주의, 허무주의, 실존주의 등을 총망라하여 함께 소개되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 현대인은 지금 모든 시대부터 있어왔던 사상들과 포스트모던주의³⁰⁾로 소개되고 있는 사상들이 함께 뒤엉켜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교회도 역시 인본주의 리더십으로 뒤덮이게 되었으며,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리더십이 인본주의 경영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속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우리가 펼쳐야 할 리더십 대안은 마땅히 신칼빈주의 운동이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래 모든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일반 은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은총이라는 방편인 기독교론을 중심으로 하는 복음 전도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기독교 종합대학교를 더욱 발전시키며, 정부의 부적절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정치 세력화하여야 할 것이며, 기독교 교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세금으로 모인 정부 예산으로부터 할당금을 당연히 받아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사립학교에 주는 것이 지원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은 표현이다. 기독교인들 역시,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으로서 동일한 수혜 자격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단 기독교인들만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법은 아니고, 모든 종교인들은 자신이 납부하고 있는 세금 등으로부터 자신의 사용처를 위한 할

30) 탈구조주의(Deconstructionism) 혹은 해체주의로 대표되는 포스트모던주의는 인본주의와 상대주의라고 하는 두 사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해체주의는 모든 형식이나 일정한 양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인데, 하지만 이것 역시도 '해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유일한 대안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 토록 '해체되어야 한다'는 해체주의는 진리가 상대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자기 자신 또한 일정한 논리만을 강조함으로써 자기모순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종교인들 자신이 이루고 있는 정치세력만큼 할당금을 요구할 수 있기도 하다. 카이퍼는 이러한 노력을 먼저 글로써 이론적 근거를 확보했다. 그것이 바로 1871년부터 시작한 글쓰기였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써 표현한 글쓰기 및 출판운동은 1878년 신교육법을 부결시키고, 대신 종교 교육예산을 새로이 확보함으로써 그 기반을 확보하였다. 이윽고 1880년에는 자유대학교를 화란의 수도인 암스테르담에 세움으로써 신칼빈주의 운동의 터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시사하는 바가 크다.

4.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서의 기독교적 리더십 대안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서 기독교적 대안은 신칼빈주의 운동으로 꼽을 수 있다. 건강한 신학의 현실 참여적 운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칼빈주의 운동이 기독교적 리더십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은 포스트모더니즘이 무엇 인지를 규명하고 나서야 가능할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 함은 마치 바다 위에 서로 떨어져 있는 두 섬 위에 연결되어 있는 현수교와도 같다. 떨어져 있는 두 섬을 연결하기 위하여 두 축이 다리 아래와 위로 뻗어있고, 아래로 뻗어 있는 두 축은 인본주의와 상대주의라는 사상으로 받쳐져 있다. 한편 위로 뻗은 두 축들은 계몽주의의 영향 아래 형성된 사상들—이신론주의, 낭만주의, 자연주의, 사실주의, 허무주의, 실존주의, 상대주의, 해체주의—이라고 하는 아래로 드리워져 연결된 각기 다른 사상들로 엮여져 있는 긴 “사상의 다리(the bridge over thoughts)”를 끌어 지탱하고 있는 형태이다. 우리 현대인들은 그 현수교 위에서 각기 드리워져 있는 사상의 끈들을 바라보며 우왕좌왕하며 자기가 믿고 있는 사상의 신념 위에 자신의 목적과 목표들을 설정하고 있는 그림이다.

4-1 포스트모더니즘의 개요

우리 크리스천이 기독교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한다면 먼저 현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상인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리더십은 과연 어떻게 발휘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일반은총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사명의 수행은 어디까지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 것인가? 등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던(Modern)이라고 하는 근대가 끝나는 시점인 20세기 초부터 시작한 1,2차 세계대전의 끝인 1945년 정도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투하가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다고 믿는 저 끔찍한 2차 세계대전의 결말과 오랜 동안 진행되어 온 세계대전의 과정은, 인간의 신뢰할 수 없는 이성의 결말을 보는 듯했다. 인간의 이성 결말에 대하여 관대하고 낙관적이던 낭만주의와 자연주의 철학과 사실주의의 몰락과 함께 허무주의를 초래했다. 허무주의는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 모두에게 자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준 계기가 되었다. 기독교인들은 허무주의 뒤에 등장한 실존주의에 힘입어 소위 신정통주의를 이루어 내고, 인간의 이성의 이상적인 결말을 여전히 무한 신뢰하던 무리들은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를 이루어내기도 되었다.

낭만주의는 이신론주의자들의 생각인, 정밀한 우주를 만드신 기계론적 세계관을 벗어나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철학을 등에 업고 모든 것을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내어버려 두자는 운동이었다. 낭만주의는, 물리학을 중심으로 접근하던 자연과학적 접근 방법이, 생물학을 중심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였다. 낭만주의의 관심은 오직 자아실현이었으며,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었던 것을 중시하던 사회에서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것을 진리로 받아들여려는 운동이었다. 하지만, 1,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형성된 허무

주의와 실존주의를 거쳐 공산주의 운동으로 전 세계를 삼시간에 휩쓴 인간 이성에 의한 “지상낙원 건설운동”은 구 소련연방의 해체를 통한 공산주의의 몰락을 가져옴으로써, 인간 이상의 한계를 보여주게 되었다. 공산주의의 몰락을 가져온 것은 소련과 경쟁관계에 있던 미국 때문이 아니었다. 구 소련의 멸망과 함께 공산주의 사상의 몰락은 자생적이며 필연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인간 이성을 신봉하던 계몽주의 운동의 한 지류인 공산주의의 몰락과 별도로, 상대주의는 20세기 초부터 다시 현대 물리학에서 싹트고 있었다. 비록 현대물리학으로 인해 믿고 있었던 공리가 상대적일 수 있다는 20세기 초의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부정확성의 원리 등은 관찰할 수 있는 진리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증할 뿐이었다. 진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것일 수 있다는 신념들은 이때로부터 더욱 확산되었다. 물론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으리라는 확산들이 확산되어지면서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신념들이 굳어져 갔다. 이는 초자연적인 것들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이었고, 오감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대주의 사상은 신학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모든 종교들이 각자의 의무를 다 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길을 거쳐서 맨 꼭대기에 도달할 때는 함께 만날 것이라는 신념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생각을 “종교다원주의”라고 부른다. 어떤 종교라 할지라도 서로의 길이 다를 뿐이지 틀리지 않는 신념인 것이다.

4-2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미래 전망: 경제와 교육과 정치

미국에는 또 다른 몰락이 진행되고 있다. 아직 드러나지는 않지만, 미국이 유지해오는 사상의 결말은 이를 예측가능하게 해 준다. 미국은 낭만주

의 사상을 경제에 적용해 왔다. 자유방임 중심의 낙관적 경제 운영 방식을 기본적으로 채택해 왔음이 이를 증명해 준다. 최근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파동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인간의 부패한 죄성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 이성을 무한신뢰한 자만의 산물인, 자유방임주의 경제체제가 몰고 온 결과일 뿐이다.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또한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교육제도는 건국 이전, 초기부터 청교도들에 의하여 유럽으로부터 그들이 도착한 땅에 교회당을 세우고 같은 장소에서 공립학교가 시작되었다. 한 건물에서 신앙교육과 학부모에 의한 평일 교육이 이루어진 셈이었다. 학교를 움직이는 행정이 점차 조직화되고 체계화 된 이후에도 여전히 공립학교에서는 수업 전에 기도가 드려졌고, 성경읽기 과목이 가르쳐졌다.

하지만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에프 케네디(John F. Kennedy, 1917-1963)가 1961년에 취임한 후 미국의 대법원은 수정헌법 1조에 의하여 국가와 종교의 분리 조항에 따라 공립학교에서의 기독교 교육이나 행사는 엄격히 금지되었다. 이후 미국의 교육 사상은 인본주의와 상대주의 사상으로 절대적 진리를 부인하고 상대를 인정해 주는 공교육이 시행되어왔다. 아무리 신앙 좋은 자녀라 할지라도 공립학교 12년을 다니고 나면 연방정부 교육시행령에 따라 각 주와 카운티(county)와 타운(town)에서도 동일한 인본주의와 상대주의 사상 아래 교육되어지기 때문에 이 두 사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러한 교육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이나 말씀으로부터 나온 사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인본주의와 상대주의를 주입하는 교육 사상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교육 제도는 나라를 근본적으로 망하게 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공립학교 교육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자녀들을 기독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립학교를 세우고 중등학교뿐만 아니라, 고등 교육 기관인 대학을 운영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운동

은 계몽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영향력에 눌린 수세적 선택의 결과였다. 이것이 바로 미국을 보수와 진보로 양극화 시킨 원인을 제공하였다. 미국의 양극화 현상은 사상의 양극화를 심화 시켰다.

이러한 수세적 선택을 현실 참여적이면서도 공세적 선택으로 전환시킨 사건은 조지 부시(George W. Bush)를 당선시킨 정치세력이었던 네오콘(Neo-conservatives)들이었다. 현실 참여적으로 돌아선 신호탄이었다. 보수적 복음주의 노선을 걸던 대부분의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보수로 연합하여 중생의 체험이 있다고 강조한 부시(Bush)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줄기세포의 공적 자금 사용금지과 낙태반대와 동성결혼을 강력하게 반대해 온 조지 부시와는 달리 현재의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결혼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토록 미국의 정치 상황은 학교 교육으로부터 현대 사상의 영향에 켜들어 있는 사람들³⁰⁾과 분별해 내어 기독교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사람들과의 투쟁 가운데 있다.

4-3 포스트모더니즘 안에서의 신칼빈주의 운동

포스트모더니즘의 복합적인 사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실현시키고자 하는 신칼빈주의 운동은 과연 가능성이 있는 목표인가? 현대 과학과 경제, 교육과 정치,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현대 계몽주의 운동 앞에서 신칼빈주의는 과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비판적이지 않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기독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는 상대주의 사상으로 인하여 소수로 전락한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숨을 쉴 수 있는 틈을 제공해 준다. 다른 하나는 현대적 인본주의로 인하여 여전히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본주의가 주는 폐해는 지

30) 오바마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선언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학교에서 교육 받은 현대사상에 지배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난 수 세기 동안 경험해 보았기에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다. 무신론자들에 의한 인간본위의 기준들은 목적, 목표와 가치 등에 있어서 인간 자신을 스스로 우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준들은 그 동안 있어왔던 공리주의, 낭만주의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효율과 효과를 중시하는 것을 강조할 것이다. 지난 300여 년 동안의 사상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는 이들 사상들이 모두 인본주의라고 하는 우산 아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간은 겸손해지기는커녕, 이성이라는 방편을 빌미로 앞으로 더욱 거세게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프리메이슨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프리메이슨 운동은 인본주의 운동이다. 친교를 가장 중시하는 이들 이념의 목적은 인간을 스스로를 최고의 목적과 목표와 가치로 두는 운동이다. 그들은 신 앞에서 예식을 가지지만, 그 신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들 자신이다. 그들에게 신의 의미는 의식을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미국에는 50개 주에 50명의 대주교(Grand Master)들이 있다. 그들은 동네(town)마다 예배와 친교 목적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 매 주마다 모인다. 모임은 더 이상 비밀스럽게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운영한다. 과감한 노출을 통하여 오히려 운동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프리메이슨 조직은 알아내기가 어렵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서로가 네트워크 되어 있어 그 인맥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경제와 군사, 정치 등의 상층 구조의 문화를 장악하고 있다. 확실히 프리메이슨 운동은 일반적인 유사 종교와는 차이가 있다. 인본주의 사상의 최전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인본주의 운동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상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다. 20세기 들어와 시작된 상대주의는 인본주의에 비하여 그 역사가 짧다. 진리가 상대적이라고 하는 신념들이 들어 선 것은 20세기 초에 확인된 현대물리학의 연구 결과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믿음은 곧 모든 영역에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 무신론자들과 종교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인본주의에 무료했던 무신론자들은

상대적 진리라고 하는 상대주의 사상에 매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우주를 움직이는 절대적인 힘(force)이 있는데, 그 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상이다. 그 절대적인 힘은 모든 피조물들에 투영되어 있으므로, 피조물들마다 신성이 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각자가 믿는 종교들은 존중되어야 하며, 하나의 진리를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는 사고 논리가 받쳐져 있다.

따라서 상대주의는 우선은 기독교에도 숨을 쉴 수 있는 틈을 제공해 준다. 인본주의가 하나님이 없다고 몰아붙였다면, 상대주의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주의가 말하는 하나님은 절대적 진리의 발원자일 수 없다. 수많은 상대적 진리들 중에 하나의 진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대주의를 확장시키는 최 일선에는 뉴에이지 운동(New Age Movement)이 있다. 프리메이슨 운동이 상층 문화 구조를 장악하고 있다면, 뉴에이지 운동은 하층 문화구조를 장악하고 있다. 문학, 드라마, 연극, 음악, 영화 등을 통하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중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두 사상 즉, 인본주의와 상대주의 중에 누가 더 나쁘게 해악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질문은 우문에 불과하다. 성경은 가장 죄악시 하는 용서 받지 못하는 죄, 두 가지를 밝히고 있는데, 하나는 교만죄요, 다른 하나는 우상숭배죄이기 때문이다. 프리메이슨 운동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는 교만이 원천에서 나온 죄의 결과요, 뉴에이지 운동은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고 숭배하는 우상숭배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 다 악한 것이요, 배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죄일 뿐이다.

하지만, 신칼빈주의는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에도 여전히 신학적 토대와 하나님의 주권 사상운동의 신학적 토대와 실천운동이다. 대부분의 영역에 이미 하나님을 없애고 인간 스스로가 아니면 우상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였다고 하지만, 신칼빈주의 운동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회복

운동으로서 오늘 날에도 유효한 기독교적 리더십으로 자리 잡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넘어서기 힘든 파도와도 같은 세상 앞에서, 신칼빈주의자들이 견지하는 신념은 온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시키는 것뿐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그분을 영화롭게 해 드리는 길은 오직 우리 인생이 살아야 하는 목적이요, 목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오직 인생의 종말이나 우주적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확장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는 신칼빈주의자들의 결심만큼은 아무도 꺾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기독교의 개혁주의 리더십이다.

4-4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서의 리더십 전략과 전망

신칼빈주의는 19세기에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퍼로부터 출발하여 화란과 미국에서 동시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비록 지금은 개혁주의 신학이나 운동이 약화된 듯 보이나, 실상은 오히려 복음주의라는 옷을 입고 더욱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의 복음주의 대회는 사회참여를 위한 선언을 하였는데, 이 때 로잔 선언을 통하여 나타난 복음주의의 노선 수정은 신칼빈주의 사상이 복음주의 운동의 옷을 입고 나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앞에서 밝혔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근본주의 또한 정치 세력화되어 이미 네오콘(Neo-Conservatives)들이라 불리고 있다. 수 년 전만해도 조지 부시(George W. Bush)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고 미국의 기독교를 통한 사회참여 활동을 크게 고무시켰다.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백악관 직속의 비영리단체 진흥기관을 직접 가동시켜 지원도 하였다. 한국에서 요즘 흔히들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혹은 공적 자금(Public fund) 등의 용어들은 미국에서 이미 기독교 지원을 위하여 사용된 용어들이다.

현재는 일일이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기독교 선교단체나 비영리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기독교 복음 전파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들도 많지만, 고아들을 돌보며, 사회구조 개선 등의 사회 참여 단체들이 늘고 있다. 이는 교회들의 선교 정책 변화 등에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복음전파가 문화적 사명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진보적인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국사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계의 정치참여는 이러한 신칼빈주의 운동의 현상임을 입증하고 있다. 고려신학교의 박윤선, 이근삼, 허순길 등으로 이어진 개혁주의 신학 사상은 수십 년이 지난 오늘 날에 이르러 한국교회에 활력소를 주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학문연구회>, <기독교경영연구회>,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창조사학회> 등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개혁주의적인 세계관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신칼빈주의 운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³²⁾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세상을 향한 리더십 대안은 신칼빈주의 운동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이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주권 확립은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를 정립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거친 파도와 같이 밀려드는 무신론적 계몽주의의 영향아래 나타난 지난 350여년의 인본주의 사상들과 20세기에 등장한 상대주의라는 사상 앞에서 기독교는 무력했던 나머지, 초라하게 겨우 버틸 힘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었다. 이러한 중에도 신칼빈주의 운동은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퍼로부터 시작된 세상을 향한 기독교적 리더십 운동은 현대 신칼빈주의자들 중의 하나인 니콜라스 윌터스토폴프의 정의 구현사상으로 더욱 힘을 내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에서 참된 기독교

32) 손봉호, “개혁주의 교회와 정치참여”, 『칼빈과 사회』 (부산:개혁주의학술원, 2010), 259.

세계관 실천 운동이 구현되어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는 인본주의와 상대주의의 파도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버텨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힘을 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필자는 개혁주의 리더십이 무엇이며, 칼빈이 본을 보였던 제네바에서의 리더십을 살펴보고, 카이퍼가 보여준 신칼빈주의 리더십을 살펴보았다. 또한 끝으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과연 보여줄 수 있는 기독교적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제시하였다.

우리는 리더십이 인본주의의 전유물인양 스스로를 포기하고 그들 인본주의와 상대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리더십의 오을 벗어나야 할 것이다. 오히려 꾸준히 발전해 온 신칼빈주의 운동을 더욱 활발히 확장시켜서 기독교 리더십 대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칼빈주의 운동의 확산에 있어서 보여준 바와 같이 교육과 출판과 정치와 빈곤 퇴치, 환경 문제 등의 관심과 깊은 연구와 현실 참여를 통한 공의가 세워지는 의와 평강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복음 전도를 통한 성령의 빛으로 거듭나는 문화변혁을 병행하는 일은 전제하면서 해야 할 것이다.

종교다원주의와 WCC

황대우 (고신대학교 교수, 역사신학)



2013년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된 WCC 총회 문제로 한국기독교회는 개최여부에 대한 찬성과 반대 견해로 나뉘어 갑론을박하고 있다. 개최 찬성과 반대 모두 WCC와 종교다원주의의 관계를 중요하게 취급한다. 개최 찬성 편에 있는 사람들은 WCC가 종교다원주의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개최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은 WCC가 종교다원적이라고 결론 내린다.

만일 WCC가 종교다원적이라고 한다면 개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개최 불가를 선언할 수 있는가? 반대로 WCC가 종교다원적인 것이 아니라면 개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개최를 환영할 수 있는가? 두 입장 모두 이미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상호 대화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무조건 개최와 무조건 불가만 난무하고 있다. 양 쪽 입장을 대변하는 학자들 역시 서로에게서 듣고 배우고자하는 자세는 거의 전무하다.

이런 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논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심히 의문이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 한국교회에 속한 많은 교인들이 WCC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면 이런 노력은 계속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필자는 본 논문을 위해 기독교와 타종교 간의 관계 유형을 편의상 크게 세 가지, 즉 절대주의(absolutism)와 우월주의(superiorism)와 상대주의(relativism)로 구분한다.¹⁾ 절대주의는 기독교만이 참 종교이며 타종교는